

클 래 스

DAC Artist 진주

2022.
10.25 - 11.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만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2)

강현주(작·연출가)
진해정(작·연출가)

진주(극작가)
〈클래스〉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승희(국악창작자)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서울연습-모델, 하우스〉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마이 아이즈 웬트 닛〉〈죽음과 소녀〉〈오셀로〉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솔로 드럼 퍼포먼스〉, 앨범 〈Human Fractal〉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폭스파인더〉

성기웅(작·연출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깃분우리절문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사천가〉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y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진주
작

DAC Artist
창작집단 글과무대,
프로덕션 IDA
극작가



작 <ANAK><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
<정동구락부; 손탁호텔의 사람들><무지개섬 이야기> 외

공동창작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각색 <마음의 범죄> 외

공동각색 <궁극의 맛>

작/연출 <검은 늑대> 외

수상 2020 강원도립극단 강원도 소재 시놉시스 공모전 우수상
<규방>
2015 한국극작가협회·아시테지코리아 아동창작희곡상
<무지개섬 이야기>

작가노트

작가가 나오는 극을 쓰지 말아라, 연극에 대한 연극을 쓰지 말아라, 예술에 대해 말하는 연극을 쓰지 말아라, 라고 배운 것 같은데 작가만 나와서 대본을 읽고 예술과 현실에 대해서 말로 싸우는 극을 써버렸다. 어떤 세대를 비난하고, 그 뒤로 숨기 위해 쓴 극이 아니다. 쓰는 동안 어떤 순간 나는 너무나 A였고, 어떤 순간 나는 정말로 B였기 때문이다. 처음에 이 대본을 쓸 때는 '진실'에 대해서, '예술과 현실', '폭력과 위계'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리고 '인정'과 '연대'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 다음에는 '어른'에 대해서 생각했다. 어느 하나도 답은 내리지 못했다. 다만 이 질문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었다.

우리는 어떻게 진실과 대면할 수 있을까, 이 상처에 대해 우리는 증언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차이와 다름 속에서도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 속에서 어떤 내가, 어떤 어른이 되어 갈 것인가? 이 넘치는 질문들이 엮이고 엮여 관객과 잘 나누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감추며 연습실에서 숨을 죽이고 연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두려워하며 공연을 기다린 적은 없었다. 좋은 것이 있다면 배우들과 연출과 디자이너들, PD들, 프로덕션 모든 구성원의 덕이다. 부족한 것은 다 나에게서 온 것이다.

어느 밤에, 연습실에서 돌아와 생각했다. 왜 이렇게 두려울까.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케이크다.

진주 작품세계

소리 없는 존재들에 대한 연극적 목소리 내기 배선애(연극평론가)

‘진주’라고 하면 보석이 먼저 떠오른다. 영롱한 빛을 발하면서도 절대 찬란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깊은 우아함을 갖춘 보석. 진주조개가 오랜 시간 품어서 만들어진 보석. 이렇게 적고 보니 극작가 진주는 영락없이 보석 진주다. 품는 고통을 함께 느끼며 조개 속 이물질을 진주로 만들어내는 힘, 화려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은은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힘. 전자는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존재들, 하찮다고 여겨진 존재들을 작품으로 불러온 작가의 태도와 연결되고, 후자는 그렇게 불러온 존재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활용한 극작술의 방법론과 연결된다.

소리 없는, 소리가 지워진 존재들을 불러오기

진주의 가장 큰 특징은 배제되고 소외된 존재들, 자신의 목소리를 한 번도 내 본 적이 없는 존재들에게 주목한다는 점이다. 발표된 작품의 흐름을 보면 이 특징은 금방 파악되는데, 초기 작품에서는 ‘역사’를 전제했다. <정동구락부: 손탁호텔의 사람들>(2018, 이하 <정동구락부>)과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2019, 이하 <배소고지>)은 진주의 지향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다. 역사에 주목한 이유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다. ‘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라는 질문의 해답을 추적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적 맥락과 흐름을 눈여겨보게 된 것이다. <정동구락부>는 1902년 손탁호텔이 문을 연 때부터 1909년 호텔 설립자 손탁이 독일로 돌아갈 때까지의 시간을 배경으로

한다. 한일합방 이전, 조선을 둘러싼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를 탐색하던 시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수많은 작품이 그러했듯이 작가로서는 충분히 거대 담론을 욕심낼 만하다. 조선의 개화파와 수구파 수장들을 주인공으로 해도 좋을 것이고, 무력했던 왕실의 고종과 민비가 주인공이어도 그럴 듯했을 것이다. 가상의 인물로 당시 호텔을 드나들고 다른 나라와의 교섭이 용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해서 시대와 불화한 영웅으로 형상화해도 괜찮았을 것이다. 그런데 진주는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 지금의 개념으로는 ‘호텔리어’에 해당하는 벨보이와 메이드, 말 그대로 ‘손탁호텔의 사람들’에게 주목했다. 스쳐갔던, 존재하고 있는지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작품의 중심으로 불러왔고, 그러다 보니 손탁호텔은 더 생동감 있고 활기찬 공간이 되었다.



연극 <배소고지 이야기: 기억의 연못>(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육상훈

<배소고지>는 6·25 전쟁이 배경이다. 국군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보통 이런 소재를 다룬 작품들의 경우 사건을 알리는 데에 집중하는 편이어서 대체로

실제 사건의 재구성이 중심이 된다. 국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했는지를 재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고, 희생된 민간인들은 제각각 얼마나 억울한 사정들을 갖고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경향이 주류를 이뤘다. 진주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실화를 다룰 때에도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배소고지>의 주인공은 여성들이다. 그런데 이 여성들이 모두 희생양이 아니라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혹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돌아서는 선택을 보여준다.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전면적으로 전쟁을 감내해야 했던 존재들이 주인공이 되면서 전쟁의 잔혹한 속성이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못했던, 존재 자체가 지워졌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불러오면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무엇인지, 흘려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각성하게 되었고, 그런 역사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견뎌낸 여성과 아이, 소외된 존재들이 구체적인 자신의 목소리를 얻게 되었다.

역사를 전제한 진주의 문제의식은 점차 지금의 현실로 초점을 옮겨오면서 강화된다. <ANAK>(2021, 2022)과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2022), 이하 <실생이이>, 그리고 곧 공연을 앞둔 <클래스>가 그러하다.

<ANAK>은 결혼이주여성 메디가 주인공이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소재는 이미 익숙하게 다뤄졌다. 경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하나는 결혼이주여성의 불행을 전시하면서 한국인에 내재한 폭력성을 폭로하는 경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인으로 흡수되어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다는 판타지에 가까운 휴머니즘적 경향이다. 작품이 어떠할지 쉽게 예측되는 소재를 굳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진주는 익숙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또다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서 이 소재를 변주해냈다. 분명 메디는 한국에서의 삶이 불행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메디의 삶과 불행은 익숙하다. 진주의 변주는 메디의 딸인 한나에게 있다. 결혼이주여성으로 인해 성립된 다문화가정,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필리핀 말로 ‘아이’라는 뜻의 단어를 제목으로 사용한 것은 이 작품의 초점이 아이에게, 한나에게 맞춰졌다는 것이다. 이주민에 대한 태도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그렇게 가족이 된 아이들, 2세대들은 어찌해야 하는가의 문제의식이 도드라진다. 물론 메디와 한나가 모두 여성이고, 한국에서 온갖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다. 쉽게 그들의 인생에 행복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 진주가 주목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이를 낳고 키우겠다고 결정한 한나는 분명 엄마인 메디와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불행의 전시에 그치지 않고 그런 불행을 만들어낸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행의 연속을 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 그래서 <ANAK>은 익숙하면서도 색다른 작품이 되었다.

<실생이이>는 진주를 포함해 3명의 작가가 공동집필한 작품이다. 2017년에 연출가 이인수를 포함해 황정은, 최보영, 김윤영 등 동료 작가들과 ‘글과무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진주는 개별 활동과 공동창작을 겸하고 있다. 이 작품은 공동창작의 결과물이다. 작품의 주제와 구성,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 세 작가가 충분히 합의하고 논의하면서 진행한 것이기에 이 작품의 특징에서 진주와의 공통점을 추출할 수 있다. 일단 이 작품 속 여성의 삶은 징글징글하게 솔직하고 직설적이다. 결혼을 앞둔 미혼여성은 현실적인 결혼생활을 위해 어떤 것을 미리 약속하고 선을 그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이혼한 여성은 다시 결혼 제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그러다보니 누구를 만나도 한없이 외롭다.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이 설레지만 오래된 남자친구의 익숙함을 버릴 수 없는 여자는 몸서리칩다. 노년의 여성은

상대방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무척 서운하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살고 있는 일상이 세밀한 것은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진주의 특징과 연결된다. 흥미로운 건 그 여성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들 역시 구체적이라는 점이다. 여성 작가들이 창작했기에 어쩌면 여성 인물들의 구체성은 자연스러운데, 남성 인물들도 그에 버금갈 정도인 것이 이 작품의 장점 중 하나다. 이런 특징은 주인공이나 특정 인물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인물들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풍부하게 엮어내는 진주의 특성과 맞물리는 부분이다.

〈클래스〉는 더 집요해지고 더 세밀해진다. 등장인물은 두 명. 역사를 전제해 초기작의 수많은 등장인물을 고려할 때 나름대로의 큰 변화인 셈이다. 두 명이 끊임없이 대화를 한다. 대화의 대상과 주제는 '희곡'이다. 대학원 극작 강의에서 만난 교수와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작품 한 편을 완성해가면서 나누는 대화가 중심이다. 두 사람은 모두 여성. 꺼내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작품에 덧씌우는 학생과 왜 그러는지를 묻는 교수는 얼핏 서로 다른 가치관과 예술관 때문에 접점을 못 찾을 것처럼 보인다. 한 학기가 지나면서 미완으로 남을 것 같은 작품은 결국 완성되어 '막'을 내린다. 이 작품에서도 진주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여성, 여성이기에 겪는 현실, 사회적 약자, 위계 폭력, 생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존재.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는 이야기 속에 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있다. 인원은 줄었지만 작가의 고민과 관심의 범주는 더욱 확장되었고 인물들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다. 작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야 하는지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공감과 과잉의 경계를 가늠하는
영리한 극작술**
소외된 존재, 목소리를 잃고 존재 자체가

부재한 인물들을 불러오는 진주는 그 인물들을 결코 평범하게 그려내지 않는다. 은은하면서도 영롱하게 빛을 내는 진주처럼 영리한 극작술을 활용해 그 인물들을 돋보이게 한다. 먼저, 구성의 측면에서 시간 순서에 따른 선형적 구성과 시간 순서를 뒤집는 비선형적 구성을 작품의 주제에 따라, 형상화하는 인물과 사건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한다는 것이 주목된다. 또한 장면과 대사가 감정 중심의 과잉으로 흐르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만큼 구현되는 것도 극작술의 중요한 측면이다.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을 다루고 있는 〈배소고지〉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교차하고 중첩되는 구성을 취한다. 기본 설정은 순희 할머니 마운탕집에서 입분 할머니의 금강혼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것이 현재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어렸을 때의 친구인 소녀가 나타난다. 이 소녀로 인해 순희와 입분 사이에 과거의 시간이 뿔뿔씩 삽입된다. 이 구성이 특별한 것은 오랜 과거의 일이지만 그 사건을 겪은 인물들에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교차는 현재의 할머니가 과거의 소녀가 되어야 하기에 그것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표현하는 것은 배우와 연출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관객에게는 과거의 시간과 사건이 현재와 분리되지 않았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로써 1951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2019년(작품 속 배경은 2016년)까지 연속될 수 있었다. 현재와 과거의 교차와 중첩 덕분에 사건도 정확히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도 제어될 수 있었다. 과거의 상황은 재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시간을 살아낸 현재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감정의 과잉보다는 인물에 대한 공감이 더 컸다.

결혼이주여성을 다룬 〈ANAK〉은 비선형적 구성을 취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만약 메디의 삶을 이주와 결혼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시간 순서대로 구현했다면 불쌍한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작품에서는 이런 시선과 감정



연극 〈ANAK〉(2021) 주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작 글과무대 ©예준미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회구조적 폭력으로 간주한다.)이 감정의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뻘한 신파극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존재를 불러오되 대상화시키지 않고 관습적 형상화를 경계하고자 한 진주는 관객이 몰입하지 않게, 인물에 대한 감정이 과잉되지 않게 비선형적 구성을 취했다. 장면 별 사건이 일어난 날짜를 임의대로 재배치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시간 순으로 가장 앞에 놓여야 할 장면—메디가 필리핀에서 재형을 만난 장면—이 극의 말미에 위치했다. 죽음을 선택하는 상황과 달콤한 첫 인연의 장면이 나란히 배치되었기 때문에 메디의 비극이 더 크게 다가오면서도 감정의 과잉보다는 공감으로 집중될 수 있었다. 시간의 재배치가 자칫 산만하거나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진주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해설자를 설정했다. 해설자의 설명 덕분에 재배치된 시간들이 쉽게 이해되었고, 인물들에게도 한발 떨어져 공감과 판단을 할 수 있었다. '결혼이주여성'이라는 소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관습적 속성들을 가능한 한 차단하려는 구성 덕분에 우리 스스로를 더욱 서늘하게 성찰할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 냈다.

가장 최근작인 〈클래스〉는 앞의 작품들과 다르게 선형적 구성을 취한다. 시간의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그 시간이 물리적으로는 봄부터 여름까지의 한 학기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이 작품에서의 시간은 희곡이 기준이다. 시놉시스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각 장면을 만들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장면을 만들기까지. 그러니까 이 작품은 교수가 강의를 어떤 순서로 진행했느냐가 아니라 학생의 희곡이 어떤 시간 속에서 완성되었는지가 중요한 작품이 되었다. 그 덕분에 희곡을 창작하는 과정 속에 작가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충분히 공감되었고, 교수와 학생 두 사람의 갈등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이라고 해도 단순히 사건의 진행을 위한 구성이 아니라 희곡(강조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삼은 진주의 영리함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4개월이라는 한 학기의 시간이 결코 지루하지 않았으며, 작품을 창작하는 작가와 함께 희곡의 완성을 고민하게 하는 구성이었다.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 자신의 목소리를 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여성, 소수, 약자, 비주류로 명명되는 존재들을 연극적으로 불러오는 진주는 현실 속 고통과 아픔에 공명하고 연대하려는 예민한 감각의 작가다. 작은 사건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겪어낸 사람들, 온몸으로 겪으면서도 한 마디도 소리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상상한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착상 단계부터 큰 고통을 수반한다. 사건이나 인물이 아픈 만큼 작가도 아프다는 얘기다. 자신이 그 누구보다 더 아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 존재들을 선택하는 극작가 진주의 용기와 의지에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시놉시스

어느 예술대학의 극작 수업.

교수 A와 대학원생 B는 뜻하지 않게 일대일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A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공격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B.

이들 사이에는 묘한 불편함이 흐른다.

B는 제출한 희곡이 매번 통과되지 않자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그들의 첨예한 논쟁이 시작되는데...



드라마터그 노트
하워드 블래닝
Howard Blanning
(번역 김지혜)

연극 <클래스>의 구조는 '의도적인 모호함'의 명확성에서 온다. 극 중 학생 B는 삶에서 큰 굴곡을 겪었다. 하지만 그 굴곡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그가 목격자였는지, 피해자였는지, 그 일의 원인이었는지는 극 안에서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그려진다. 표면적으로 <클래스>는 B가 수업 과정에서 극을 완성하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그 극이 자전적인 극인지, 아는 누군가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전기적 극인지, 허구를 바탕으로 하는 픽션인지, 혹은 이 셋이 회오리처럼 섞인 극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관객으로서 우리는 그저 이 회오리 같은 구조를 따라가며 극의 인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기대치가 변화하는 것을 감각할 뿐이다. 극이 진행될수록 이 변화는 명확해진다. 의도적인 모호함을 통해 관점의 변화를 명확히 체험하게 하는 이 전략은 진주 극작가만의 독특한 극작법이자 극작가로서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프로덕션의 필요에 따라 드라마터그의 역할은 그때그때 달라진다. 고전을 다시 무대에 세울 때, 드라마터그는 주로 극작가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때로 모호해 보이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기도 하고, 극의 배경이 되는 시간, 극작가가 극을 쓴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다양한 정보 등을 프로덕션에 제공하기도 한다. 극 속에 은유적으로 숨겨진 극작가의 의도가 담긴 모든 구조적 장치들을 찾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고전을 각색해서 무대에 올릴 때, 드라마터그는 원작과 새롭게 각색된 작품의 차이를 모두 찾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각색한 극의 주제, 구조 및 논리가 원작과는 사뭇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드라마터그는 두 극작가를 대신하여 원작과 각색 작품의 구조, 논리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두 작품이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프로덕션 팀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극작가와 함께 창작극을 개발하여 무대에 올릴 때, 드라마터그의 역할은 조금 더 다층적으로 변모한다. 이미 대본이 완성되어 대본상의 수정 없이 무대화만 남았을 때는 드라마터그의 역할이 고전을 무대에 올릴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극작가가 극을 통해 의도한 바와 프로덕션의 방향성이 같은 곳을 향해 있더라도 복잡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가가 극을 쓸 때 염두에 둔 공간이 작고 내밀한 공간인데 정작 공연이 큰 극장에서 올라가는 경우, 극에 쓰여진 내밀하고 비밀스러우며 때로는 불길한 대화의 결이 공간의 성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혹은 프로덕션이 극단의 작업으로 꾸러질 때, 극 속 인물에게 요구되는 외향적인 특징이 극단 배우들의 특징과는 다른 경우도 있다.

창작극 개발에 있어서 드라마터그에게 작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무대화 작업이 예정된 채로 극작가와 최종 대본 수정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다. 진주 작가, 이인수 연출의 <클래스>가 내게는 이런 경우였다. 드라마터그로서 극작가인 진주와 바로바로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게는 극작가의 의도와 극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았다. 또한 극이 관객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느냐”만큼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를 내밀히 고민하는 작가의 과정을 지켜보며 극작가의 장인 정신을 목격할 기회도 되었다.

진주 작가의 다른 작품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작가가 극을 지을 때 극의 구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얼마나 까다롭게 그 구조를 짓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 작가와 주기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클래스>에 녹아 있는 작가의 주제와 의도를 더욱 세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작가 자신이 드라마터그 역할과 드라마터그와의 협업이 어떻게 작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와 나는 토론 주제들을 고려하고 극에 반영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클래스>는 관객에게 강력하고도 팽팽한 긴장감을 담은 굉장히 잘 짜여진 극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드라마터그로서, 나는 재능 있는 극작가이기도 한 이인수 연출이 이 작업의 연출을 맡고, 또한 신작 개발에 열과 성을 쏟는 두산아트센터에서 진주 작가의 <클래스>가 첫 선을 보이게 되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클래스>가 창작극을 사랑하는 두산아트센터의 관객 여러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기쁘다.

이인수

창작집단
글과무대
연출



연출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ANAK>
<오페라 샬로트로니크><테라피><우리는 처음 만났거나 너무 오래 알았다>
<두 개의 방><필로우맨>

연출노트

진주 작가와의 협업은 2017년 <이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ANAK>으로 이어진 작업에서 진주 작가의 작품에 대해 매년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회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섬세한 시선과 작은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는 귀입니다.
이러한 시선과 경청으로 쓰인 작품이기에 깊이 들여다보고 여러 번 보고 또 봐야 그 세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물들은 선과 악으로 쉽게 나눌 수 없으며, 각자의 환경과 연약함으로 인해 이런저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가가 이들 하나하나를 애정과 공휴, 깊은 이해를 담아 불러내고 말하게 하고 듣기에, 진주 작가의 글은 한 겹 두 겹, 세 겹까지 들여다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클래스>도 그러합니다. 작년에 낭독공연으로 무대 위에 올랐을 때 읽어내고 표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어린 세대가 어른 세대에게 동행을 요구할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어른 세대는 그 요구에 응답하고 손잡고 동행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읽고 분석하고 표현했던 기억이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을 위해 다시 희곡을 찬찬히 들여다보니 또 다른 층위의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B는 왜 이토록 쓰려고 하는가? 그런데 교수 A는 막상 B가 글을 완성했을 때 이 글에 대해 어떤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애썼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B가 쓰려고 하는 글의 가치는 무엇인가? 예술학교, 그리고 수업이라는 환경 속에서 쓰인 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B가 쓴 글의 예술적 성취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키워드들을 조합하며 리서치를 하다 보니 결국 남게 된 키워드들은 이것이었습니다: 트라우마. 스토리텔링. 문학. B는 12살 때 겪었던 일로 인해 트라우마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과 감각은 여전히 B의 삶 속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한 앎과 알지 못함, 말하고 싶은 절대적인 욕구와 표현할 말이 없음의 무력감, 잊어버리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과 결코 잊을 수 없는 각인된 분노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고 있는 B는 이 반복의 사이클에서 스스로 출구를 찾기 위해, 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수많은 언어의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상처에 적절한 의미와 모양을 부여하여 자기에게서 분리해내기 위해 애씁니다. <클래스>는 이러한 B가 죽은 학생의 외침을 듣고 그것이 자신과 비슷한 상처에서 나오는 비명임을 알아듣게 되고, 그 경청과 증언을 통해 자신의 고통의 의미 또한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모호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에서 스스로의 실수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생으로서 어른으로서 함께 듣고, 함께 걷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A의 이야기입니다.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야기”(『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and History』, Cathy Caruth, 1996)이며, 타자의 상처를 듣고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 큰 소리로 말하고 노래하는 입으로 자신의 상처를 승화시켜가는 ‘영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A도 결국은 B의 글에서 이것을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케이크와 또 두 개의 샘플 케이크라는 모호하고 불분명한 결말이지만, 그 모호함과 불분명함 자체를 상징과 은유로 창조해낸 B의 작품의 가치와 힘을 이해했기에, “애썼어.”라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애쓰는 마음으로 <클래스>를 관객 여러분에게 건넵니다. <클래스>가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상처와 고통을 겪었던 이들에게는 그 상처와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가, 그 용기와 무한한 내재적인 힘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내 주변의 고통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 응답하고, 전달할 수 있는 겸허함과 용기, 그리고 변화의 이야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연습노트
양수진(조연출)

2021년 <클래스>는 ‘두산아트랩 공연’ 낭독공연으로 선보였습니다. 이 작업에서는 대본이 가지는 ‘텍스트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이를 ‘완성된 극세계’로서 온전히 구현해야 한다는 당연한 책임감이 따랐습니다. 강의실이라는 실제 무대가 들어옴에 따라 생겨나는 행동과 상황을 통해 입체적으로 인물 간의 관계를 표현해야 했고, ‘트라우마’에 관해 지난 작업보다 심층적으로 다루며 작품 측면에서 더욱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두산아트랩 공연
<클래스>(2021)
낭독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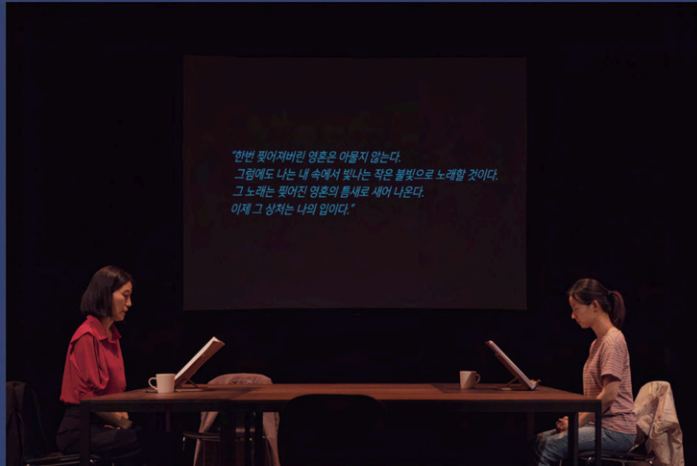


가시적인 변화로는 실제 강의실을 무대에 구현하고, 이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지난 낭독공연의 경우 무대 중앙에 커다란 사각형의 테이블 하나를 두어 장면별로 앉는 위치를 바꾸어 나가면서 물리적인 거리와 바라보는 방향의 변화를 이용하여 극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독회 형식은 두 인물 사이에서 평면적으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인물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연에서는 강의실이라는 구체적 공간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행동들을 찾고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인물들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표현하고, 두 인물이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객들은 낭독공연과 비교하여 좀 더 입체적으로 인물의 관계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극중극 또한 2차원적인 텍스트에서 벗어나 극중극의 인물인 나나와 언니의 입체적인 행동과 관계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낭독공연 때 B가 준비해온 대본을 스크린에 프로젝팅하여 관객들과 함께 읽어가며 극의 내용을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관객들이 수업 속에서의 A와 B가 리딩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동시에 나나와 언니가 살고 있는 극중극 세계를 상상하도록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극세계와 현실 세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두산아트랩 공연
〈클래스〉(2021)
낭독공연



무대 디자인 면에서는 희곡이 가진 여러 개의 층위를 관객들이 동시에 보면서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객들이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볼 때 커다란 프레임이 관통하여 무대 즉, 극세계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는 A라는 인물이 선생님이로서 B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B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지 등의 작품 속 상황과 갈등들을 객관적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 극은 두 인물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원로 교수와 죽은 학생, B가 창작한 극 속의 나나와 언니라는 총 3개의 인물 관계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관련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의 층위는 무대 한편에 조성되어 있는 추모 공간, 극작 수업이 벌어지는 교실, 그리고 B가 쓴 대본 속 허구의 세계가 순간순간 겹쳐지거나 분리되어 멀어집니다. 관객들은 이 시각적인 레이어들을 통해 각각의 세계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제 면에서 낭독공연 〈클래스〉는 ‘극작 수업’ 안에서 선생님인 A와 학생인 B의 세대간 갈등에 관해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이번 공연에서는 이를 포함하여 B가 자신의 트라우마를 글쓰기를 통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또한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이를 위해 트라우마를 다루는 서적들을 참고하거나, 장재키(액팅코치, 신경심리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트라우마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나, 뇌의 변화와 특징,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이것이 극 속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클래스〉(2022)
연습 사진



〈클래스〉는 A와 B 두 인물이 한 학기 동안 강의실 안에서 함께 수업하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세대로서 갈등하고 서로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 인물을 중심으로 원로교수와 죽은 친구, 나나와 언니 등 인물들이 이어지고 멀어지는 순간들을 섬세하게 지켜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주영 교수 A

- 연극 <비평가><당선자 없음><콜타임><그을린 사랑><고역><와이프WIFE>
 <궁극의 맛><검은 입김의 신><육쌍둥이><반신>
 <2017 애국가— 함께함에 대한 하나의 공식>
 <냄비><박제 갈매기><아가멤논가의 비극> 외
-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
- 드라마 <한사람만><홍타운><아무도 모른다><아이템><타인은 지옥이다>
 <열두밤> 외
- 영화 <비상선언><다른 길이 있다><그녀가 부른다><하모니> 외
- 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지옥— 두개의 삶> 외
- 수상 2003 혜화동 1번지 페스티벌 권력유감 展 ‘훌륭한 여배우상’
 <아가멤논가의 비극>



정새별 학생 B

- 연극 <내게 빛나는 모든 것><이것은 실존과 생존과 이기에 대한 이야기>
 <달걀의 일><나, 해석><죽음의 집><콘서트— 동의><고독한 목록>
 <록앤롤><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외
- 수상 2018 제5회 서울연극인대상 신인연기상 <심청>



경계에 선 두 사람

- 무대는 오로지 두 배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 열어서 보여줄 것인가, 닫아서 보여줄 것인가.
- 관객과의 관계에서 단절감이 아니라
- 두 인물의 말과 행동이 더 잘 보여지는 프레임으로써
- 무대가 존재하길 바란다.



DAC Artist 진주
클래스 2022.10.25—11.12
두산아트센터 Space111

작
진주 조명대어
파이어 라이트(대표 도전기)

연출
이인수 음악·음향디자인
이승호

드라마터그
하워드 블래닝 Howard Blanning
음향오퍼레이터
양수진

출연
이주영 정새별 의상디자인·제작
옷장(대표 이윤진)

조연출
양수진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프로덕션 무대감독
김영주 분장팀
남혜연

무대디자인
박상봉 소품팀
박진경 임민정

무대디자인 어시스턴트
김종은 희곡 영문 번역·통역 코디네이터
김지혜

무대제작
에스테이지(s-TAGe 대표 이윤중)
심리자문
장재기

제작팀장
정우상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전하은

제작팀
김세진 김용선 남기상
이승용 이종민 정병문
정우근 정재현 차승호
영상기록·촬영
업플레이스(대표 오득영)

작화팀장
이남련 사진기록
정희승(포스터, 프로필)
만나사진작업실(대표 김신중)
(연습, 공연)

작화팀
신혜원 박윤경 박지원 조정숙
인쇄
으뜸프로세스

조명디자인
김성구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조명디자인 어시스턴트
지소연

조명크루
김민지 김은영 김형준 김형진
윤진선 정주연 조화영 홍주희

조명오퍼레이터
권서령

두산아트센터

예술감독
강석란

기획
박찬종 정다은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지혜

프로듀서
김요안 남윤일 신가은

홍보마케팅매니저
강소라 강소정

티켓매니저
이한별 최시윤

기술감독
김관수

조명감독
황동철 왕은지

음향감독
신승욱 류호성

무대감독
강현후 민지홍

하우즈매니저
권지은 김미나

두산갤러리 큐레이터
최희승 장혜정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박소연



제 13회 두산연강예술상

DOOSAN ARTIST AWARD

두산연강예술상은 두산그룹 창업의 초석을 다지고
인재양성에 힘쓴 연강(蓮崗) 박두병 초대회장의 뜻을 이어
공연·미술 분야의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한 상입니다.

수상자

공연부문

이홍도
Hongdo Lee

미술부문

정희민
Heemin Chung

상금 및 부상

공연부문
상금 3천만 원
공연 제작 지원(2024년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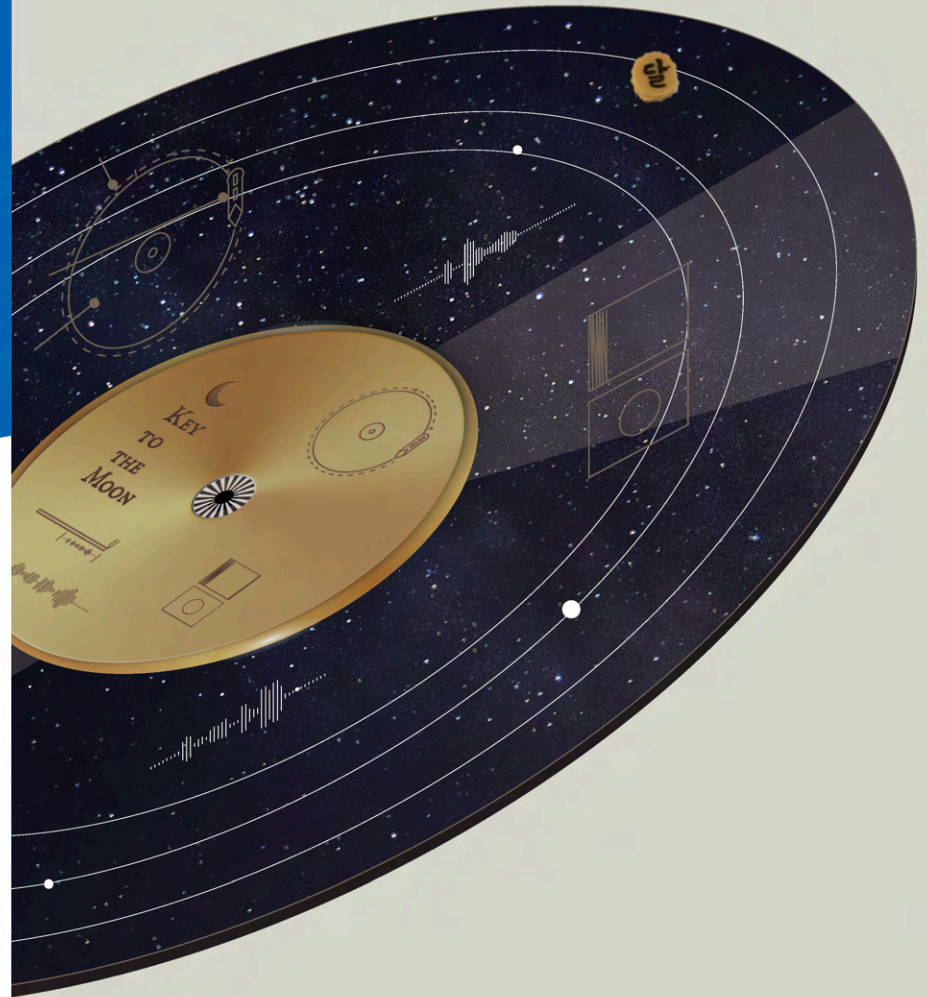
미술부문
상금 3천만 원
전시 지원(2023년 하반기)
해외 레지던시 입주 지원(2024년)

이것은 멀리 떨어져있는 작은 행성에서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2022. 11. 29(화) - 12. 17(토)

두산아트센터 Space¹¹¹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티켓플라이어
에메 두산아트센터 doosanartcenter.com 인디파크티켓 ticket.inpark.com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신작
작·연출 윤혜숙

SECOND CHANCE

세컨드 찬스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 공모 안내 2023

DAC Artist

DAC Artist는 젊은 예술가들의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공연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안정적인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1월 9일 - 1월 27일 (오후 5시까지)

지원내용

- 공연제작비 (최대 1억 원)
- 공연장 (Space111) 4주, 연습실 6주
- 두산아트센터 기획/제작 전반
- 홍보마케팅

공연기간 2024년 9 - 10월

대상

- 만 40세 이하
- 한국 국적
- 학교작품 외 2개 작품 이상 창작활동 경험자
(작품은 유/무료 제한 없음)
- * 장르 제한 없음

인원 2명
* 개인만 지원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두산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artcenter.com